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제2교육관 기공예배

3월 9일(수) 수요일 I 부 예배후 현장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여온 제2교육관 기공예배가 오는 3월 9일(수), 수요일 I 부 예배후 제2교육관 부지에서 드러진다.

그동안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제2교육관의 건립 필요성을 절감해온 교회는 현재 뱃바게광장(교회입구 좌측 주차장)에 제2교육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작업을 해오던 중 건축허가 및 시공회사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기공예배를 드림으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2교육관은 지상 2층, 지하 4층으로 총 연면적이 2,860여평에 달하며 지하 3,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집회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완공은 96년 봄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교회에서는 공사 착공시 그 장소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리라고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교회주변에 주일에 빌려 쓸 수 있는 곳은 영동전화국 옥외 주차장 뿐인데다가 그곳은 80여대의 수용능력으로 완공될 때까지 주차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도로



▲ 제2교육관 공사 현장인 뱃바게광장의 전경

활용한다해도 부족하기에 주차할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오랫동안 주차할 차량은 영동전화국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

는다든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등의 협력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이다.

인사이동

교회는 박치민 장로의 소천 및 대학부 지도이병각 목사가 대전 중부산업대 교수로, 교구위원회 지도 김성운 목사가 성석교회 당회장으로 가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1. 전도위원장
명, 김재명 장로
2. 교구위원회 지도
면, 김성운 목사
명, 최인근 목사(예배위 겸직)
3. 교구 지도
제6교구 면, 김성운 목사
명, 박정규 목사(제18교구 겸직)
제12교구 면, 이종용 목사
명, 이종대 목사(제4교구 겸직)
제21교구 면, 최인근 목사
명, 성봉환 목사(제19교구 겸직)
4. 교회학교 지도
고등부 면, 장봉생 목사
명, 윤삼중 목사(성경연구원 겸직)
대학부 면, 이병각 목사
명, 장봉생 목사
장년1부 면, 윤삼중 목사
명, 김양홍 목사
5. 상호회장(동산관리부장 당연직)
명, 김여순 장로
명, 상호회 운영위원 교구위원장, 새가족위원장, 전도위원장, 강 협 장로

- 이하영 장로, 박인건 장로
· 협력위원 / 남여전도회 연합회장
· 행정담당 / 정정주 집사
· 재정담당 / 전홍열 집사
· 상례담당 / 주원홍, 오인근, 서동석,
장봉순, 장영창 최명환, 강봉수, 허명호,
박상준, 설명동, 최진성
6. 전임교역자
명, 윤삼중 목사

고 박치민 장로 교회장



례를 치렀다.

고 박치민 장로는 1980년 5월 제22대 장로로 장립을 받은 후 교회내 여러 분야에서 충성, 봉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일하였다. 지난 해의 봉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금년에는 전도위원장으로 수고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여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시무 장로로 일하시던 박치민 장로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월 1일 오전 9시 교회뜰에서 교회장으로 장

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 교회장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주례로 시작,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호산나찬양대의 찬양, 기획실장 윤명식 장로의 약력소개, 정하우 장로의 조사, 김창인 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예배를 마친 후 교역자, 장로들의 헌화 후 교회를 출발 충현동산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모친, 부인 명정옥 권사와 2남 1녀가 있다.

3월 주요행사

- 1(화) 3.1절 기념일
- 2(수) 정기당회
- 5(토) 주간성경공부(제1학기) 개강
- 5(토) 교사양성부 제40기 개강
- 5(토) 찬양대 양성부 개강
- 6(주) 공동의회(장로선거의 전)
- 7(월) 목회자 세미나(제3회 제2학기) 개강
- 9(수) 임시당회
- 13(주) 장학금 수여식(94년 제1학기)
- 13(주) 제직회(1/4분기)
- 20(주) 공동의회
(제28대 장로 투표와 개표)
- 25(금) 제2차 성찬식, 종려주일
- 28(주) 고난주간
- 4월 1(금) 전교인 금식일

제직회, 3개월마다

교회는 그동안 매월 모이던 제직회를 3개월에 한번씩 모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직인원이 3,000여명을 넘게 되고 각 지회의 활동으로 제직회 참석율이 저조하여 성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1회씩 전 제직이 모여 제직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금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제직회로 모이게 된다. 3월 제직회는 13일에 모일 예정이다.

새벽기도회 II 부제로

오전 4시 30분과 5시 30분에

교회는 새벽기도회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4시 30분과 5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청소년을 둔 가정의 주부들이 현행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끝내고 가면 준비가 늦어지기에 시간을 당겨 오전 4시 30분에 I부 새벽기도회를 갖고, II부는 오전 5시 30분으로 현재와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3월 17일(월)부터 실시된다.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길고 자세하지는 않지만 종말에 관한 소계시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의 때, 집 주인의 비유, 두 종의 비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 그 날과 그 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생각지 않는 때에 옵니다. 밤에 도적과 같이 옵니다. 또 번개와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들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구원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날과 때에 대한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대속사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수시지 아니하면 시종하셨고, 하루종일 일을 하면 저녁에 피곤해서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 노아의 때와 같이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좀더 알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120년 후에 홍수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해 했고 그로 하여금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불경건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경건의 삶은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삶인데 위를 바라 보지 않고 밑만 바라보았습니다. 셋째로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 밖에 모르면 노아시대와 똑같습니다. 쾌락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똑같은 일에 종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한 사람은 하나님 앞

에 데려감을 당하지만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만 또 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주의에 빠지고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버려둠을 당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한 가족이거나 함께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데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안온다, 앞으로 천년 후, 이천년 후 먼 훗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그 다음의 자세는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동무들을 때립니다. 잔인한 것을 뜻합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의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지 않는, 다시말하면 세속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결과가 무엇일까요? 51절에 보면 "심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지기서 슬피 울며 이를 씹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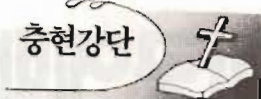
할 것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종의 운명이 외식하는 자의 운명과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씹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림 날짜에 대한 추측은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추측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지, 이 세상의 종말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바는 다만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며 깨어 있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정말 후회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해서 영적인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게을리해도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날이 나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늘 위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재림이 가까워져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현장단



재림의 시기

(마 24:36-51)



신 성 중

<목사·당회장>

감을 당한다는 말은 휴거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딱히 추수 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알곡들은 다 모아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창고에 모아들이고, 쟁쟁이와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넣어 재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 깨어 있는 것과 깨어 있지 않은 것은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먼저 깨닫고 우리 하는 의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물론 경건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았느냐 죽었느냐는 것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경건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징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

세 종류의 아버지



가정의 해를 맞아 과연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가정목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들 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직장에서는 충실하고, 모범적이지만 자녀들의 문제는 다 아내에게 맡기는 '바비' 형이 있고, 둘째는 직장에도 가정에도 전혀 무관심한 '넌네' 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도 가정, 양쪽에 다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는 '바비' 형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게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성경적으로는 적어도 자녀교육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 신 성 중 목사

◆ 동기수련회를 마치고 ◆

'사랑부 1일 교사'로 참석하고서

그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마음에 없는 말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김 경 숙
(집사)

1994년 3월 1일

제6회 사랑부 겨울성경학교에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1일 교사로 참석을 하였다.

91년, 92년 두 해 동안 교사로 봉사했던 낯설지 않은 교사실에 들어서며 기쁨으로 뛰는 가슴과 설렘 속에 교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임성한 목사님의 '꿈꾸는 어린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과 율동, 과별 특활, 과자 따먹기와 바구니 터트리기 게임, 성경이야기 듣기 등을 하며 2년 전 사랑부 교사로 봉사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랑부의 친구들과 하루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낮익은 사랑부의 친구들, 담임을 맡았던 현경이와 미리, 사랑반의 상혁이 지인이, 낙만이, 송이 등 다정한 얼굴들을 모두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부자유한 지체를 바라보며 정상적인 육체를 가졌으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장애를 입지 않았나 점검했었고 그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마음에 없는 말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성경학교 마지막 순서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성경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듣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듣는 사랑부 친구들의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을 다시 재확인하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다 했건만 때론 두 마음을 품어 주님을 근심케 하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또 한번 회개할 수 있었다.

사랑부의 친구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밝은 미소와 기쁨의 모습으로 모든 중헌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징검다리 ●

권사님 건강하세요

김 희 수

(목사, 중등1부, 17교구 지도)

우리 교구에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다. 그 중에서도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거동하시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권사님의 생애의 전부였다. 지금은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 한 평생을 혼자서 사셨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랑으로, 친구로 베풀어 이 날까지 인내하며 살아오신 것을 생각할 때 자 연히 머리가 숙여지기도 한다.

가끔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약해지기 쉬운 믿음의 자세를 재확인시켜 주고 승리해야 한다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며 권사님의 집을 나서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구역식구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 큰 이년 동안을 구역식구들이 날짜별로 순서를 정하여 권사님의 가정에 찾아가 반찬도 가지고 가고 식사도 챙겨 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도 해주며 말벗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자신의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 시대에 혈통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병든 노인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헌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권사님께서는 구역식구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바치겠다고 하시면서 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속히 권사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 이 난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난입니다.

◆ 조 사 ◆

박 장로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기뻐하실 고 박치민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의 영결예배식전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아침 장로님 뵈었을 때 "내 가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두번씩이나 말 씀하시며 즐거워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한데, 어떻게 그렇게도 갑자기 떠나셨는지 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중헌교회의 제22대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활동하는 부서와 역할은 달랐지만, 장로님은 차량부, 기도원, 중헌동산, 구제부, 봉사위 등의 부서에서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고, 가장 힘든 일들을 맡았어 정성스럽게 일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격려와 돌보심이 특출하셨습니다. 교인들의 조사에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금년은 전도위를 맡으시고, 지역을 맡으시면서 구제와 교구계획을 펼치시며 남달리 힘을 쏟으시던 장로님을 다시 뵈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장로님의 영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깊이 존경하게 된 것은 지난해 봄 수안보에 갔을 때로 생각합니다. 14세 되던 해에 6·25를 만나 부모님을 여의시고, 청소년기에는 고아원에 생활하시며,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던 이야기. 지금도 그때에 같이 생활했던 식구들을 생각하시며 늘 가까이 돌보고 계신다던 말씀, 여러 개척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남몰래 도와오셨던 수많은 일들, 젊었을 때는 외롭고 괴로움에 지쳐 세상을 버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릴 때 듣고 배웠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오늘에 이르렀던 일들.

명정옥 권사와 결혼하기 위해 대학문을 찾아 졸업한 일과 명호군이 의사가 된 것을 무척 기뻐하시면서 장차 양로원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시던 꿈들, 교회의 장래를 은혜롭게 지원하기 위한 봉사대 운영의 꿈들..... 이렇게 수많은 사연과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룩하기로 했었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장로님.....

박 장로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9년전 김창인 목사님의 주례로 기 다리고 그리던 명 권사님과 결혼한 날이 아닙니까. 어찌 혼자서 김목사님의 축도를 받으시며 천국으로 가신단 말입니까?

저와 장로님과 2차의 만남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정말 꿈만 같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장로님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떠나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증거하셨던 장로님, 인간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심령에 매인바 되기를 원하시던 장로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구하시던 장로님,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간증하시던 장로님, 인간적 의지의 틀에서 벗어나 거룩한 참 기쁨을 간증하시던 장로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이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던 장로님, 세상 짐을 내려 놓고 애뜻해 하시던 두 부부의 사랑스런 모습,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464장) 찬송을 하를 향해 힘차게 부르시던 모습, "이제 건강해지면 모든 것 버리고 정 장로, 우리 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던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데, 장로님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지요.

이 기간은 정말 장로님의 가슴 속에 천국을 이루신 모습을 똑똑히 보여 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장로님, 이제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장로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장로님의 모습을 뒤따르려고 합니다.

박치민 장로님!

장로님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던 교회 뜰에서 사랑하시던 가족들, 존경하시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 함께 일하시던 교역자님, 당회원, 수많은 교우와 친지들이 모여 장로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믿음의 본과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길이 되새기며, 장로님이 소망하셨던 일들을 남은 우리들이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우신 자랑스러운 2남 1녀와 자부, 남겨두신 어머니님과 사모님께서 믿음의 본이신 장로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떳떳하고 훌륭하게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형님 박치민 장로님이시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영생을 누리 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주후 1994년 3월 1일

당회원 대표 정하우 장로 드림

21세기를 향한 강단갱신과 교회성장 목회자 세미나 개강

충현교회 부설 한국 교회 성장연구원은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21세기를 향한 강단 갱신과 교회성장"이라는 주제하에 오는 3월 7일 오후 1시 개강하여 5월 9일까지 제3회 2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총 10주간 개최한다.

금번 학기는 제1교시(오후 1시 ~ 2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1)가 있고 제2교시(오후 2시 50분 ~ 4시 20분)에는 주제에 따른 여러 목사와 교수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 강사는 김동익, 윤영탁, 고영민, 정성구, 이용남, 박조준, 이한수, 안종만, 강동수, 하해룡 목사 등이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을에 첫학기를 시작

하여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천여명의 목회자가 전국에서 모여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누며 목회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신청을 끝낸 상태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목회자들을 초대하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목양지가 갱신되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는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3월 7일까지 교회 교육국(전화 552-8200 (교)504, 팩스 567-607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간 일자	제1교시 13:00~14:30	제2교시 14:50~16:20
3월 7일	성경 강해	설교와 교회성장 김동익 목사 미국 밴더빌트대 박사과정 현 새문안교회 담임
14일		선지서에 나타난 설교자상 윤영탁 교수 미국 드랴시드 박사과정 현 합동신학원 학장
21일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고영민 박사 독일부포탈신대 신학박사 현 성도교회 담임
28일		현대설교의 유형분석 정성구 교수 화란뿌라야데 박사 전 총신학장
4월 4일	신성종 목사	새신자 목회의 실제와 이론 이용남 목사 ACTS 목회학 박사 현 장석교회 담임
11일	미국탬플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강해설교의 방법과 실제 박조준 목사 미국 프린스턴대학원 현 갈보리교회 담임
18일	현 충현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의 성령론 문제점 이한수 교수 영국 에버딘대학 철학박사 현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일		설교자의 자세 안종만 목사 미국 웨이랜드침례신학박사 현 대흥침례교회 담임
5월 2일		시대가 요구하는 설교 강동수 목사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목회학박사 현 동신교회 담임
9일		목회자의 자기관리 하해룡 목사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목회학박사 현 벨렐교회 담임

94년도 1학기 장학생 확정, 총 101명

장학금수여식 오는 3월 13일에

94년도 제1학기 장학생이 확정됐다. 그동안 신청을 받아 실시한 결과 총 101명(위탁장학생 15명 포함)을 수혜자로 결정했다. 장학생은 신학원 장학생 5명, 당회인정 장학생 1명, 소석장학생 14명, 충현장학생 59명, 위탁장학생 7명으로 총액은 4,762만원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3월 13일 저녁 찬양예배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 신학원 장학생
백익현 추상현 김운식 이준경 남상범
- 당회인정 장학생
김철성(대학원)
- 소석 장학생(대학생)
이은경 백수미 이길찬 김지영 이기엽 정마애 박송이 임채석 윤현선 이은례 나길수 홍기준 허수연 심성웅
- 충현장학생
- 대학생
마상찬 박창석 전진영 박태진 김영진 안복남 오은주 엄소연 박소연 윤정훈

- 김희석 김현진 이미숙 김희영 박명숙 강석진 박재덕 김경성 한정근 김명섭 - 고등학생
- 김수현 김범진 문선웅 김수영 고탁인 고정일 박동석 김중현 김진실 임성이 신혜령 고정일 오미선 김사무엘 신병철 김인균 최형원 이재기 구혜경 김정직 김봉선 이민욱 - 중학생
- 이은정 정지현 고재영 최철훈 조혜영 김진세 고형주 박병규 김환홍 서한희 김형선 최지영 김광희 엄해숙 서지연 류제근 황인욱
- 충현사랑의 장학생(강남구청, 서초경찰서 추천, 대학생)
김상현 김용균 김현정 권은미 손유진 노일환 김항국 최승일 한나영 이은아 임정빈 김선덕 김철규 김대희 오경옥
- 위탁 장학생(대학생)
박운경 오후연 김성희 유성렬 박형정 박경민 안명철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6일(주일) -13일(주일) LA 교민연합 집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7일(월) 두란노서원 목회 철학과 양육 체계 세미나 강의, 8일(화)교구 교역자, 교구장 수련회 특강(충현기도원)
2.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24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각종 성경공부반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 구역모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충현교회 선교지 방문 및 성지순례단 모집

충현교회의 선교지(이집트, 이스라엘, 독일) 방문 및 신규약성경의 배경인 성지순례를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현장과 성경에 나타난 성지들을 직접 확인하는 은혜와 감동의 귀한 체험을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여행일정 : 1994. 4. 7일(목) - 29(목) (22박 23일)
- 방문지 :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 신청마감 : 1994. 3. 15(화) 18:00 (선착순 30명)
- 신청방법 : ① 선교위원회 사무실 (T. 552-8200 (교) 357)
② 한중여행사 (T. 720-0606, 대표 김연근 집사)

교사와 찬양대원 별도 배식

그리스도의 편지 개별 발송토록

주일, 12:00 - 13:00, 메추라기홀에서

주일 교회내 취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시간에 쫓기는 교회학교 교사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찬양대원을 위한 별도 배식을 하기로 했다. 교사와 찬양대원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메추라기홀(선교관 지하2층 식당)에서 별도 배식을 받을 수 있다.

전도대상자를 상대로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발송을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에서 각자 개인이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전도대상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목적으로 보내는 편지이다. 교회는 이 편지를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고 있다.

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시련이 나를 둘러쳐
나를 친다 할지라도
들꽃처럼 견고히 선
내 삶의 모습에서
당신없는 내 물음엔 더더욱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시며
나의 아픔을 아시지만
정말
얼마만큼 이 설움이 길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게 안내와 기다림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소복소복 쌓이는 내 근심의 먼지가
어제는 한없는 어둠속을 걸었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새벽녘 내 잠을 깨우게 하시고
내 울음
내 근심의 먼지를
기도로 바치게 하신 당신이시여
한방울 한방울 기도에 담아
당신을 향한
내 사랑과 고백의 소리로 모두어서
오늘도 내일도
한없이 당신께 바칩니다.

오 희 승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원)